

보도시점 2026. 7. 29.(수) 석간 < 2026. 7. 29.(수) 06:00 >

한국과 브라질 중소기업 분야 협력으로, ‘K-스타트업’의 남미 진출 본격화 추진

- 노용석 제1차관, 7월 28일 브라질 상파울루서 브라질 중소기업부 차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분야 상호 협력 본격화 논의
- 올해 2월 룰라 브라질 대통령 방한 시 체결한 양국 중소기업 분야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 이행 방안 협의 및 공식 협력 채널 구축 합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현지 시간 7월 28일(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노용석 제1차관과 티아구 니카시오 페레이라 브라질 중소기업부 차관이 양자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올해 2월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국빈 방한 시 체결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분야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한국-브라질 정상외교 성과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남미 진출 동력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면담에서 양국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중소·벤처기업 공식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정책 교류를 활성화해 양국 중소·벤처기업이 현지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노용석 제1차관은 중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함께 최근 개소한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 서울)’ 및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인 ‘컴업(COME UP) 2026’을 소개하며 스타트업 분야 정책 교류를 제안했다.

또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스타트업과 남미 최대 시장인 브라질 스타트업 생태계가 교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이에 브라질 대표단은 스타트업·벤처 캠퍼스의 혁신 창업 생태계 지원 모델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등 한국의 정책 지원 노하우와 혁신 중소기업 기술보증지원제도에 대해서도 브라질 도입 의사를 적극 표명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브라질 중소기업부와의 양자 면담은 지난 2월 체결한 우리나라와 브라질 간 중소기업 분야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양국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정책의 협력 관계가 공고히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글로벌성장정책관 국제통상협력과	책임자	과 장	정소영	(044-204-7550)
		담당자	사무관	손민국	(044-204-7552)
			주무관	전태현	(044-204-7557)

